

치대병원 21세기 비전, 진료, 봉사, 교육의 메카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초일류 치과병원'이라는 21세기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외에도 각 대학의 치과병원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21세기 비전을 준비중이다. 이에 11개 치대병원의 21세기 비전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취재/안정미 기자



비전 21 선포!

지난 1월 29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혁신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새로운 병원문화 창달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초일류 치과병원'이라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비전 21을 선포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비전 21은 병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서 사업영역과 성장목표를 명시하고 병원의 사회적 존재이유로서 병원의 사명을 명시하며 병원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기준과 가치 및 교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과 공유가치에 대한 행동규범 마련으로 경영과 병원문화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외에도 각 10개 치대병원은 21세기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21세기에 대한 병원의 정책적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교육과 진료, 연구 외에 봉사(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이념을 확립하는 것이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은 ISEG 비전을 선포하여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 사회봉사(Social Service), 교육문화(Edu-Culture) 및 녹색경영(Green Management)을 통해 효진료를 시행하고자 한다.

진료프로그램 개선

과의 통합, 공동진료, 테마별 진료, 특수 클리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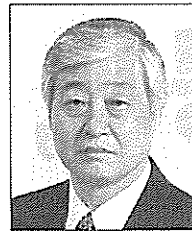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과를 통합하거나 공동진료실을 마련하는 등 비효율적 조직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임성삼 서울치대 병원장은 "과를 통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하므로 중복되거나 비슷하다고 취급되는 진료과를 동시에 배치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은 진료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통합진료실을 운영하는 개방의료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 과를 클로즈하는 개념없이 과를 개방하여 인접하는 두 개, 세 개 과의 벽을 허물고 필요에 따라 유니트체어를 공동사용함으로써 기다리는 환자의

수를 줄이고 경영수지의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보존과나 치주과 등 공통된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로 묶어 환자가 움직이는 범위를 줄이고 진료의



임성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립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치과병원 분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무한경쟁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 생존하기 위해



권영혁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장

장기계획에 따른 목표는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 학생의 실습에 만전을 기하는 병원, 경영이익이 높은 병원, 연구비 유치실적이 높은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

원내생에 대한 실질적 교육 강화를 위해 원내생 교육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인턴식 교육을 실시하여 졸업



손홍규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장

WTO체제와 OECD가입은 의료시장의 개방압력을 가중시켜 의료분야에도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의료시장 개방화가 예상된다.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병원은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의료기술 및 병원경영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심하고 있다.

특수한 진료의 경우 섹션화해서 노령화 사회 등에 대비하여 실버클리닉을 마련, 한 곳에서 서비스할 수

는 개개인의 변혁 마인드와 변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1세기에 대비한 개인과 조직의 성공적 비전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역량 극대화를 통한 조직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윈윈(win-win) 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식현신을 꾀하고 21세기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경쟁력 강화와 행동력 배양을 이룩하여 성공적 인생연출을 창출하고, 조직과 개인의 공생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21세기의 장기검토과제로서 치과병원의 분립을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별도의 경영체로 분립 추진하고자 한다.

하자마자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과 4학년을 포함, 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친절교육과 연계해 교직원의 자기반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여 친절직원으로 뽑힐 경우 수시로 시상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진료에 관계되는 모든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연2회 포상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간이다. 효율적 진료를 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므로 클로즈된 과를 개방하여 유니트체어를 공동으로 활용,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경영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한다.

자세가 필요하다.

high-tech high-touch의 새의료문화를 통해 편안한 병원,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자 라는 병원목표와 '의료를 통한 고객과 병원구성원의 보다 나은 가치창조' 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고객과 더불어 병원도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직원의 서비스 정신도 중요하다. 타성에 젖어 고압적인 자세로 근무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환자를 우선하는 병원이 돼야 한다.

현재 병원의 SWOT(Strong, Weak, Opportunity, Threat point)를 분석하여 구체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마케팅 기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병원의 실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 마케팅 관리를 하고자 한다.

있도록 하고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신적인 치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중이다. 그리고 무공포클리닉에 행복 클리닉 등의 이름을 도입해 동통을 감소할 수 있는 진료를 강화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100% 과별 진료체제보다는 협진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 임플란트, 심미, 약 안면 동통 분야에 센터를 설치하여 환자가 이동하지 않고 의사가 팀으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안한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모시듯이 환자를 진료하는 효진료' 개념의 치과병원으로 특성화하여 환자와 의료진과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효진료를 통해 학생들의 윤리관 확립에 교육적으로 활용하며 교직원들이 부모님을 모시듯이 진료, 사회봉사를 통한 효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병원 경영의 마케팅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경영진단을 조기에 실시하여 환자와 의사의 관계, 의사와 행정직과의 관계에서 서로간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은 구강악안면외과, 소아치과, 보철과, 교정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및 소아과가 협동진료하는 두개악안면센터와 구강악안면외과, 소아치과 및 교정과가 협동진료 하는 악교정 클리닉이 개설되었으며 구취클리닉, 악관절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고 임플란트 클리닉을 개설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은 과간 협진을 활성화하여 환자간의 불편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타과 의뢰환자에 대한 특별진료팀을 각 과에 운용토록 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은 특수클리닉 운영 및 종합진료실을 개설하고 있다.

기존의 임플란트 클리닉, 악관절 동통 클리닉 이외에 구취 클리닉, 코골이 클리닉, 진정 요법 클리닉 등을 신설하여 각 임상 분야의 유기적 협진 체제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또 종합진료실을 개설하여 치과대학생의 임상교육에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신환의 예전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환자 전달 체계를 확립하

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강릉대학교 치과병원은 임플란트 클리닉, 구취 클리닉, 악안면동통클리닉, 소아 및 청소년 진료실, 소아진정치료실, 소아교정치료실, 장애자진료실, 악안면외상클리닉, 악안면중양클리닉, 언청이 클리닉, 턱변형 클리닉, 악안면기형 클리닉, 구강건강증진 센터 등 특수클리닉을 개설하여 환자가 편리하게 수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분화된 진료를 협진체제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경영의 합리화

연봉제 및 인센티브제 도입,
홍보 및 병원마케팅 강화, 지속적 직원교육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치과의사 이외의 치과병원 전직원에게 동시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주변환경을 실감토록 하고, 개인의 변신 및 조직의 화합을 통해 환자만족경영의 치과병원을 단시간에 이룩한다는 목표 하에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과장책임 경영제를 도입하여 각과 나름대로의 경영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병원경영 정책에 반영, 자립경영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연봉제 및 인센티브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하루 한 명 환자 더 보기' 캠페인을 벌여 진료량을 증대시켜 경영목표 달성에 힘쓰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은 단기적으로 병원홍보를 강화

하고, 시행중인 야간진료를 보다 활성화하며 병원의 캐릭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신기술의료제품을 개발하고 특화 상품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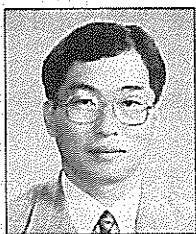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은 경영마인드에 대해 증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분기가 끝난 후 평가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연계, 효율적 병원운영을 꾀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교수성과급제 및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교수들이 환자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수월성과 균형성을 갖춘 성과급 제도를 99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연구, 교육, 봉사 및 진료업적에 따른 연봉제 실시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은 기존의 토요일 전일 진료제도 결과를 분석하여 환자의 편의와 경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야간진료 체제의 도입에 대해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원내의 진료 서비스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코디네이터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고객 서비스 개념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예산책정, 수당 등에 반영함으로써 동기 유발에 따른 작업 능률 극대화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주1회 각 부서별 미팅 및 직원협의회(직능별 대표자로 구성)를 운영하여, 병원의 주요정책 및 사안을 전



강 동 완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모시듯이 진료하는 전국 유일의 효진료' 병원으로서 생명 존중의 윤리관을 지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적 구강보건 인재를 양성하는 최우수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발전하고자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 사회봉사(Social Service), 교육문화(Edu-Culture) 및 녹색경영(Green Management)을 통한 ISEG Vision을 실천하여 병원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신축중인 병원을 99년 12월 준공시켜 이전 개원하여 보다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창의적 연구와 개발에 의한 환자 위주의 효진료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동시에 학생들을 위한 임상교육 공간과 지역사회 치과의사를 위한 개방화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21세기 실버시대를 맞이하여 24시간 SOS Dental Service와 연계된 Home Care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함께 토의함으로써 구성원간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병원 운영에 구성원의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성원의 주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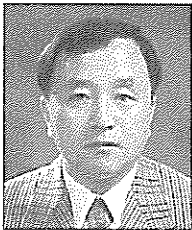
해외 치과병원 자매결연, 시뮬레이션, 인터넷 활성화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은 방학 중 자매병원인 동경치대와 학생실습 및 직원연수 등 상호교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의 일류 치과병원과의 제휴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후진국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98년에는 몽골치과 의사 연수교육을 6개월동안 실시한 바 있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은 학생들의 임상교육을 위한 사이버 및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임상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최근 해부학 실습의 경우에도 사이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부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치의학 분야에서도 사이버 공간 내에서 치의학 실습을 시행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구강상태가 시뮬레이션된 사이버 공간 내에서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대치까지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중이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은 노후된 랜설비를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의 고속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였다.



권오원
경북대학교 치과진료처장

치의학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구강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면에서는 대학생, 전공의, 전임의, 교수, 지

완성된 랜을 기반으로 진료의 업무 처리, 처방전 및 각종 병원 운영에 관한 통계 자료의 실시간 출력이 가능하도록 전문 프로그래머를 배정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각 외국에서도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새롭게 병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속하여 치의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궁금증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교수들이 직접 답함으로써 21세기 첨단 정보화 교육의 기틀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강릉대학교 치과병원은 병원 6층에 별도로 정보화 교육실을 마련하여 빔프로젝터 2대, 단말기로 노트북 컴퓨터 20대를 랜에 연결하여 병원전산화에 따른 교육과 인터넷 정보활용 등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원 증축 및 신설

임상치의학 연구 및 원내생 임상실습 강화,
첨단 의료장비 확보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은 연세의료원과 21세기 공동목표로서 세브란스병원 신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의 신축은 연세의료원의 21세기 초반의 중요한 목표이자 중요한 과제이며 치과병원 입장에서는 연세의료원의 지리적 중심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함으로써 동쪽에 있는 치과병원이 새병원과 인접된 효과로 외래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련의 교육의 문호를 개방하여 타대학 졸업자도 본원에서 얼마든지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역개업치과 의사, 치과기사 및 치과위생사에 대한 임상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진료에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도록 학생종합진료실의 기능을 보강할 것이다.

진료권 내의 1차 및 2차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치과 환자를 대상으로 3차 외래, 입원진료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급, 만성 치과질환의 진단 및 치료, 유전 및 선천성 기형과 부정교합의 진단 및 치료, 지체부자유 환자의 구강질환에 대한 진료와 상담, 악구강 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특수진료 및 기능 훈련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으며 수련의 교육과 평가를 철저히 하여 본원 수련을 마친 후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술과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치과대학에는 임상연구원을 설립하여 개원의 임상 연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식경영을 위한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해 치과진료의 질환별, 진료과별로 상세한 진료술기를 기술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활용한다. 또한 질환별 진료기간, 질환별 평균진료비 등을 산출하여 고객이 쉽게 진료정보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내부, 외부의 정보화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5-6년 내에 PACS를 도입하여 filmless 환경을 만들고 EDI(전자정보교환) 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도 장기적 계획으로서 2003년에 5천평 규모로 병원 증축 또는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임상실험실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타대학과 공동으로 연구진행을 활성화하며 산학협동에 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은 국제적 학술교류가 체결된 독일 꽤팅겐 치과대학(1997년), 일본 도쿠시마(1997년), 미국 알라바마(1999년) 치과대학 및 병원 등과 공동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공동 연구센터를 신축병원 개원과 함께 개설할 생각이다. 국제공동 연구센터가 개설되면 교수 및 레지던트의 학술교류, 국제공동연구, 임상학술정보 교류를 통하여 본 대학교의 특성화 사업인 산업디자인 분야와 함께 병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무통, 무소음 진단 및 치료 기구 등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은 입구 대로변에 건축되어 환자에게 보다 높은 접근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병원은 준공 및 이전 개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정한 인력 확보, 장비의 적기 투입, 최신의 시설 설비,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할 예정이다.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은 독립된 치과병원 건물을 대구시 중심지역에 건축예정에 있다. 주요 일정은 2000년 상반기 설계완료,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말까지 건축공사완료, 2002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은 치과진료처의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계약, 진료실 내부 및 외부를 포함한 건물 내외부를 새롭게 디자인, 약 7달 정도의 기간에 걸쳐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중이다. 2000년 말경에는 진료공간이 현재의 800여평에서 1500평으로 증축될



김 신
부산대학교 치과진료처장

21세기를 맞아 교육기관이자 3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난이도 치료항목과 고부가가치의 항목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한 정책 마련으로 특수클리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태동단계에 있는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에 발맞



강 병 철
전남대학교 치과진료처장

21세기가 돼도 치과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그 근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구, 재료, 기계들이 도입되고 환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공간



송 광 업
전북대학교 치과진료처장

국립대학 경영혁신방안의 치과진료처 구조조정안에 따른 치과진료부로의 조정문제와 치과병원 분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쏟을 예정이며 치과임상연구동의 증축문제를

것이다.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은 3개년의 병원 신축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중에 있으며 진료에 관련된 노후 시설과

추어, 장기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진정한 독립경영체가 되기 위하여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실행할 계획이다.

유치원 아동의 건강검진 및 병원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정을 지불한 유치원 아동을 1일 1백명 정도 받아, 소아과 종합검진, 체격 및 체력검사, 시력, 대소변, 방사선 검사, 구강검진, 보건교육, 병원견학 등을 패키지화한 상품을 개발, 현재 실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병원급은 고도 질환의 치료, 환자에 대한 임상교육,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임상연구 등 본래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을 넓히고, 치과의사들의 진료능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치과 진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지난해말 29대를 더 설치하였고 현재 800여 평의 공간이 1500평으로 늘어나는 2000년 말에는 이에 해당하는 유니트케어 및 장비를 충분히 설치할 예정이다.

21세기 광주 전남의 거점 병원으로서 병원에 직접 내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치과의원, 치과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 즉 높은 수준의 진단,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모두 만족스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서울지역으로 진료를 위해 시간과 경비를 더 소모하는 치과환자가 없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해결할 것이다.

병원의 전산화 시스템은 98년에 구축했으나 치과병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점이 있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며 다른 치과병원과 마찬가지로 랜망이 확보돼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최신정보를 알 수 있다.

새로운 정책으로서는 진료기간의 단축을 통한 통합진료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병원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교육을 위한 치과진료에 대한 무료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신 장비를 단계적으로 구비함과 더불어 병원 관련업무의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강릉대학교 치과병원은 최신 첨단진료장비의 도입으로 향상된 진료수준과 더불어 치과대학과 연계하여 임상연구동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부분에서도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국가선도 병원

지역사회 리더, 봉사활동, 문화 선두주자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은 지역사회 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문화창달에 노력하며 특히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은 구강강좌팀을 구성하여 보건소나 구청 등과 연계해 무료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개업의를 상대로 교육을 하며 요청이 있을시 홍보물도 제공한다. 또 동대문 구청과 협조하여 부속병원, 한방병원과 공동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병원으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은 병원에도 문화가 있다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환자를 위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연 4회 전시될 수 있도록 투자를 증대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가을음악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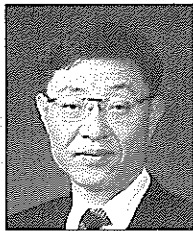
사회봉사 실천으로서 지난 97년부터 응급치과 의료시스템인 SOS Service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모시듯이 환자를 진료하는 효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지방 경찰청과 상호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불우 청소년 선도사업과 효행자 등에 대한 사회봉사 사업을 추진코자 협력기관 협정을 체결하여 효진료봉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단기적 1회성의 진료 봉사라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보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봉사로서의 진료사업이 체험적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요구됨에 따라 94년 이후 임상교수,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된 triangle 봉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은 지역사회에의 호응 없이는 치과병원의 발전 또한 있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병원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강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 사업으로 먼저 지역사회 개원 치과 의사를 위해 신선하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치과의사 개인의 자질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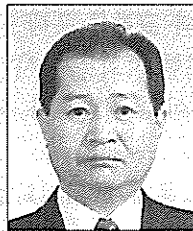
이 동 근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장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의 증축, 의료원 분원에 제2, 3의 치과병원을 신설하고자 한다.



김 용 기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장

21세기의 의료 및 치과계는 가공할 의료시장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치과병원에서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 신축, 이전 계획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최 기 열
광릉대학교 치과병원장

국립대학교 병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치과병원 단독법인으로 개원하여 치과진료 및 임상연구, 교육을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지난 97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다.

또한 치과의료 사회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의 그늘진 부분을 살피는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먼저 소년 소녀 가장 및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 시술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다.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지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 월1회 정도로 치과병원 교수들의 무료순회 구강보건교육이 3월말부터 실시된다.

연간 매일 임상교수가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료과의 광범위한 통합뿐만 아니라 특수진료실을 확대하고 첨단의료장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진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병원의 목표는 환자 특히 노인인 소아치과 환자에게 가장 편안한 병원이 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료체제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모색, 합동진료체제로 환자가 최소한 움직이는 진료가 되도록 할 것이다.

환자 중심의 고객 서비스 개념을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환자 우선의 서비스 개념과 경영 마인드를 확고히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 중심의 서비스 개념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친절환 진료 서비스를 제공,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내원하여 편안하고 기분 좋게 치료를 받고 그 후에도 다시 찾게 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환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환자 리콜제의 재정립, 효율적인 재고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지출 절감 등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년부터 올해까지 추진중이다.

현재 임상 각과 교수 확보율은 평균 1.4명으로 교수의 진료부담이 큰 바, 교육 연구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빠른 기간 내 최소 3명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진을 축소 및 과진 제거를 위해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진료지침조정위원회 및 개발팀을 구성, 임상주제 선정 후 지침을 개발한다. 그리고 특별팀을 구성하여 실무적으로 활성화한다.

가장 늦게 생긴 치과대학 및 병원인 만큼 가장 열의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